

수백억 쏟은 금융권 보안체계 무력화… 사각지대 점검 시급

해킹에 뚫린 금융보안

〈上〉투자 실효성

금융권의 해킹 공격과 정보유출사고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공격 등으로 기존 방어체계가 무력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회사들이 매년 막대한 비용을 정보보호에 투자하고 있지만 사고가 반복되면서 보안투자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외부 해킹(AI 도구 활용 공격 및 외부 위탁업체·대출모집인 등 외부 접근 경로 취약점 공략)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곳만 7곳이다. 은행 4곳(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 3곳(에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이다.

◆ 보안 투자·인력 운용 제각각

주요 시중은행들은 매년 수백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별로 투자 규모와 전체 정보기술(IT) 투자액에서 정보보호가 차지하는 비중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2025년 정보기술 부문 투자액은 4634억원, 정보보호부문



〈신한은행·국민은행 정보보호 투자비교〉

/한국인터넷진흥원

구분	신한은행			KB 국민은행		
	2024년	2025년	증감	2024년	2025년	증감
정보보호 투자액(억원)	370	369	-1	425	433	8
정보보호 투자비중(전체 IT 투자액 대비, %p)	8.6	8	-0.6	7.5	8.2	0.7
정보보호 전담인력(명)	91.0	97.8	6.8	97.1	96.7	-0.4

/Chat GPT 생성 이미지.

신한은행, 연간 정보보호 투자 369억
개인신용정보 관리 6년 연속 S등급
KB국민은행, 정보보호 투자 433억

금융사 자체적 구축한 보안체계
위탁업체 통한 침입 차단 점검 필요
취약점 신속 발견·개선 등도 중요

투자액은 369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IT 투자액은 4288억원에서 4634억원으로 8.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IT 투자액에서 정보보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수준이다.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2024년 91명에서 지난해 97.8명으로 6.8명 늘었다.

KB국민은행의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은

5315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은 433억원으로 8.2%를 차지했다. 2024년 국민은행의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은 5673억원으로 그 중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이 425억원으로 7.5%로 집계됐다. 전년 보다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이 늘었다.

다만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은 2024년 97.1명에서 96.7명으로 0.4명 줄었다. 전체 IT투자 규모를 줄이는 가운데 정보보호 예산은 확대했지만 전담인력을 소폭 축소한 것이다.

◆ 최고등급 인증에 24시간 관제까지
주요 은행은 그동안 정보보호와 관련한 각종 인증을 획득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해 왔다.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 주관 '개인신

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인 S등급(100점)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ISO27001) 등 국내외 인증도 확보했다. 내부 해킹 대응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보안원과 정기적인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국내 금융권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이버방위센터 주관 훈련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역시 고객정보 접근 시 추가 인증을 적용하고 인가된 직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외부 수탁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KB금융그룹은 올해 1월 그룹사이버보안 센터를 출범시켜 공격자 관점에서 취약점을 점검하는 '레드팀'과 상시 보안관제를 담당하는 '블루팀'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그룹 통합 보안관제센터를 연중무휴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업무상 필요한 인력으로 제한하고, 접근 목적과 사유를 등록·관리하는 절차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안 인증과 관리체계에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 보안점검과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보안체계가 외부 업무지원시스템이나 위탁업체 등을 통한 침입까지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보안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정보보호에 투자하고 각종 보안 인증을 획득하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최근 공격이 핵심 금융거래시스템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외부 업무시스템과 위탁업체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보안투자 규모뿐 아니라 실제 취약점을 얼마나 신속하게 발견하고 개선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신한금융, 6933억에 롯데손보 품었다

최대주주 빅투라 지분 77.04% 인수
그룹 판매 채널·디지털 역량 결합
비은행 부문 수익성 기여 확대 전략

신한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인수계약을 맺고 손해보험 사업 확대에 나섰다. 롯데손보의 334만 고객과 장기보험 영업 기반에 그룹의 판매 채널·디지털 역량을 결합해 비은행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잔여 지분 확보와 자본확충까지 추진하는 만큼, 인수 이후 통합 성과가 투자 효율을 가를 전망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회장 진옥동)는 이날 이사회에서 롯데손보 인수안을 의결하고, 최대주주인 빅투라가 보유한 지분 77.04%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빅투라는 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투자목적회사다.

계약 대금은 6933억원으로, 보통주 2억 3908만 2287주를 주당 2900원에 사들이는 구조다. 같은 가격을 전체 발행주식에 적용한 지분 가치는 약 9000억원이다. 금융당국 승인 등 선행조건을 충족한 뒤 거래가 종결된다. 취득 예정일은 미정으로, 최종 취득금액은 거래 종결 때 확정된다.

◆ 334만 고객·장기보험 기반에 신한 채널 결합

이번 계약은 장기간 이어진 매각 협상의 결실이다. 2019년 롯데손보 경영권을 확보한 JKL은 2023년부터 재매각을 추진해 왔다. 2024년 우리금융이 본입찰에 불참하면서 매각이 지연됐고, 올해 신한금융과의 협상도 가격 이견을 거쳐 본계약에 이르렀다. 신한은 인수 전략은 규모가 작았던 손보 사업을 확대해 비은행 부문의 수익 기여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2



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손보

년 출범한 신한EZ손보는 올해 상반기 18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롯데손보의 고객과 판매 기반을 활용하면 장기보험 사업을 키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롯데손보의 상반기 말 자산은 13조 6376억원, 보험계약마진(CSM)은 약 2조 2000억원이다. CSM은 보유 보험계약에서 향후 보험서비스 제공에 따라 인식할 미래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다. 편입이 완료되면 신한은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그룹 채널을 통한 신규 영업을 더할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신한은 롯데손보의 장기보장성보험 중심 영업 기반에 그룹의 다양한 채널과 디지털 역량을 결합해 영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신한EZ손보와의 통합으로 중복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사업 규모 확대와 비용 효율화가 함께 이뤄져야 비은행 부문의 실질적인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 지분 매입 넘어 자본구조 개선

인수대금은 전체 투자에서 첫 단계다. 신한은 금융당국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잔여 지분 22.96%를 추가 확보하고, 완전자회사 편입 후 신한EZ손보와의 통

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주주에게 지급하는 지분 매입대금과 별도로 재무건정성을 높일 추가 재원도 투입하기로 했다. 잔여 지분 확보 방식과 추가 자본 투입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롯데손보는 올해 상반기 보험손익 537억 원 흑자를 냈지만, 투자손실 791억원이 겹치면서 순손실 185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금리부자산과 일부 외화자산의 평가손실이 투자손익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2분기만 보면 순이익 13억원을 내며 흑자로 돌아섰다.

6월 말 총 지급여력(K-ICS)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161.92%다.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은 회사 발표 기준 -5.4%로, 직전 분기 -21.4%보다 개선됐다. 보험 본업의 이익 기반을 유지하면서 자본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인수 후 과제다.

신한은 완전자회사 편입 후 자본구조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기준은 50%지만 적기시정조치 적용에는 9년의 경과기간이 마련돼 있다.

신한은 외부 조달 없이 그룹이 보유한 자본을 재배치해 인수를 추진하고,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과 고객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임직원·설계사와 소통해 고용 안정과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사업 경험과 고객·영업 기반을 강조하며 "이런 강점을 그룹의 자본·리스크 관리와 고객·디지털 역량에 더해 보험 사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지속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왼쪽부터)김재민 신한은행 글로벌사업그룹장, 김중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도날드 뽕가리 인도네시아금융감독청 은행감독국장, 솔리스띠오 다라마만 인도네시아금융감독청 금융지주감독국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윤순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이영직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장, 조명현 신한인도네시아 금융그룹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지주 출범

업계 최초… 현지 임직원 900명 근무

신한금융그룹은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을 현지 금융지주회사 역할을 겸하는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지주회사인 '신한인도네시아금융그룹'을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환은 2024년 12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9월 현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뒤 지분 이전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전환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신한카드와 신한투자증권이 각각 보유하던 현 지배인 신한인도파이낸스와 신한투자증권 인도네시아의 지분 일부를 인수해 두 법인의 지분을 각각 50%+1주씩 보유하게 됐다.

신한금융은 지난 10여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확장해 약 9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이번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계기로 계열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현지 금융당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한금융은 이날 인도네시아 재계 4위 기업집단인 시나르마스(SinarMas) 그룹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양사는 기업금융과 공급망 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시나르마스의 현지 산업 네트워크와 신한금융의 금융 역량을 결합해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

진옥동 신한금융회장은 "금융지주회사 출범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할 기반을 갖췄다"며 "시나르마스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